

**우완식**  
(주)한화/에너지 부회장

## 에너지 절약의 美德

우리는 “節約”을 古來로부터 “勤儉”과 합쳐 “勤儉節約”을 몸과 마음가짐에 있어 기본적인 좌표로 삼으면서 생활의 “美德”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時代의 흐름은 價値觀마저도 바뀌게 하는 모양이다. “勤儉”은 아직도 不變의 德目으로 남아 있으나 “節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요지부동의 덕목으로 자리를 지키지는 못하는 듯 싶다.

농업사회와는 달리 산업사회에 들어서 구태여 “유효수요”라는 어려운 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소비” 활동이 생산·투자·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현상에 근본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때인가부터 “소비가 미덕”이라는 데까지 의식 변화를 일으킨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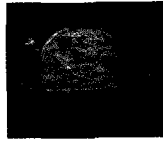
그러나 에너지와 관련한 경제활동에 있어서까지 “소비가 미덕”이라고는 감히 아무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에너지 절

약”은 변치 않는 “덕목”으로 남을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너지 절약”이 단순히 소비생활에 있어서 염두를 두어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향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다. 가장 단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이 주는 압력이다. 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의 요구는 점점 강해질 것이며 이 또한 이제와는 다른 강도로 경제활동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0년의 화두는 “환경”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환경”이 이제까지의 에너지 정책인 수급안정에 초점을 둔 “공급중심정책”에서 “수요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시의적절하게 에너지 정책을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요관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기업도 에너지절약 활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일선 사원들의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집념이 갖는 위력을 믿으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상응하도록 그 기간이 되는 에너지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에너지 공급시설의 꾸준한 확대에 치중해 왔으며, 한편 에너지 가격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한 균형가격으로 형성되도록 하지 않고 정부개입에 의한 정책가격으로 지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왜곡된 가격은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수요관리의 중심축은 “에너지 절약”이며 에너지 절약의 주체는 난방과 조명의 혜택을 받는 소비자를 우선 연상하게 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여 다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그 중요한 위치를 더해갈 것이며 정부는 Prompter의 역할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다년간 에너지를 생산하는 한편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유회사에서 경영자로서 몸담아 오면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에너지 효율제고를 끊임없이 강조해 왔고, 한편 현장의 우리 사원들도 적극 호응하

여 각종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용화하여 많은 성과를 얻은 경험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필자가 몸담았던 정유회사는 오랜 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 기왕에 효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온 바인데 그렇게 쉬임없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틈이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면도 없지 않았으나 어느 해인가는 50억원 이상의 절감을 한 실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문제는 사고의 전환에 있다.

우리 주위의 각 기업들도 첫째 “에너지 절약” 활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둘째 일선 사원들의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집념이 갖는 위력을 믿으면 그야말로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제부터야말로 순수한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시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습관”을 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소위 IMF 시절에 소비품조가 자취를 감추고 또한 에너지 소비도 대폭 감소한 현상을 보였으나 지금은 옛말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은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일시적인 캠페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이며, 또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경제활동에 대한 압박을 누가 감당해 줄 것인가?

결국 우리 시민 자신들이며 그 방안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하여 이어서 우리 후대들도 자연 습관화시키는 길을 밟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한편 침언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습관과 의식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축이 될 것이다.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에너지를 절약”하는 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사회는 허례허식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과욕을 부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앞으로 “환경”이라는 화두는 국가경제전반과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대처하는 핵심중의 하나가 “에너지 절약”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다음 말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에너지 절약으로, 가정튼튼,  
기업튼튼, 국가튼튼”**